

십인의 내 선장의 주장자를 딱 쥐어야 합니다

25면에서 계속

들이 지금 몸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를 빌리고, 자기 영혼의 뿌리와 인연 된 그 생명들이 지금 혼란이 돼서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터 알아야 외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층 3층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아래층은 짓지 않고 2층하고 3층을 지으려니 그게 지어집니까? 그러니 나무터 인다는 것은 기초부터 다져서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지어야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모두 나무터 알아야 할 텐데, 나를 내가 모르고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내가 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끌어 갈니까? 그 생명들로 해서 모든 것이 진화돼 가지고 탈구멍을 들고 나면서, 본자가 봤다가 인자가 봤다가 본열이 봤다가 한테 합쳤다가, 작용을 무수히 하는 요범이 있는데 말입니다.

질문자(남):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질문과 체험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만들겠습니다.

질문자(남):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스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다가 보니 너무 덩겁해서... 스님, 제가 스님 말씀대로 그가 하는 것을 믿고 몽땅 얹에 버리면 서까지도 정말 믿는데 너무 힘듭니다. 또 제인을 믿어야 되는데 왜 또 스님께 와서 여쭙아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잡아 놓고 공부하는데 질문, 체험 이런 거를 서로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설법만 하나까 여려분과 내가 너무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니까? 보세요. 짝은 무조건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짝 한 잎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다면 그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짝은 뿌리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뿌리가 썩질 양이면이 썩도 싱싱하게 푸르게 살 수 있는 데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뿌리를 놔두고도 그 짝은 이파리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리면 괜히 '아이고, 이거 바람에 또 날리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뿌리가 있는데 뭐가 힘이 됩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많듯이 몸 안에도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몸안의 생명체들이 제기끔 딱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의 선장 뿌리한테다 모든 거를 맡겨 놓아 가지동적으로 거기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돼이 이론으로 말로 아무리 공물을 해도 그것은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스려야 다스려지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육안, 또는 그냥 이론적인 말로는 아무리 말버둥이려도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마음의 선장한테다가 일임하면 마음의 선장만이 그럴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선장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렇다면, 나는 위로는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지금 생명들을 다 거느리고 사는 집현소며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공생이지 딱의 몸뚱이에서 생명이 하나라도 튀어나와서 따로 살 수 있습니까? 따로 살지 않죠? 딱의 몸속에서 다 같이 살죠? 그렇다면 공생이죠?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볼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들을 때 내가 했다 고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산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똥을 누었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모든 거를 합해서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이 주인 공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뿌리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만 믿고 거기다가 맡기면 다 거기서 다스려서 해 줄 텐데, 왜 관리인 심부름꾼이 그렇게 참심을 하나니까? 일종의 종과 같은 건데, 서포가 공생이고 공용이기 때문에, 즉 맡히거든 서포가 소임을 맡아서 제 기쁨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말입니다. 나사

가 하나만 빠져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지금 공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만 산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혼자 말버둥이를 치고 애를 필요 없다 이 소리에요. '거기서,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에 일임해 버려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마음 속에서 안되게 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되게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가라지 않아?' 하고 말기는 겁니다. 전 부!는 없어요. 나 혼자만 없어요. 공했던 말입니다. 모두가, '공(傭)이 왜(인)이요, 색이 공 아니라, 모두가 공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나라!' 이했어요. 그러니 대답하다 그런다면 답답한 거는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시원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 나오니까? 그러니 시원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답한 거는 그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내댈지언

마음의 선장 뿌리한테다 모든 거를 맡겨 놓아야 자동적으로 거기서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이론적인 말로는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될 거를 왜 그렇게 불똥고 늘어지는 경향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경을 보지 마라!' 이러는 것은 다 이 자리를 잡고 내가 나를 발견한 뒤에 경을 보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아예 혼들 리지를 양기, 요계 틀리고 요계 옳고 요계 그르고 이걸 따지다 보면 이 공부는 백 년 천 년 이기도 못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의논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오는 것 딱지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말고 그대로 그 대로, 바깥에서 옹도에 따라서 딱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대치하고 나가 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잡고, 내가 심안의 소리를 듣고, 심안의 소리가 뜻으로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게 활동이 됐을 때 그때 에 경을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이

렇게 되니 이거는 뭐 전부멍만부당해요. 그래 서 시장에 가더라도 나한테 없는 것만 사 오랬지, 누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것 보고 탐내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질문자(남):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전번 법회 때 지금 현재 제가 병신이듯이 병신에 대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서 마음으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다 하고 믿고서 그냥 팽개치고 그렇게 매달리고 하면서도 그 나머지 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데, 제가 지금 하는 대로 그냥 나가면 안젠기는 되는 것인지 그런 게 대답해서...

큰스님: 왜 걱정을 하나니까? 쇠든지 금이든지 용광로에다 그대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물질적인 모두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거기 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바깥 어쳐서 나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들고 나면서 조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믿어서 말가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 하셨습니다. "네 몸뚱이가 배리면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중생들

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이러 할 저러 할, 나도 옳다 너도 옳다 하고 나서게 되면 배가 뒤집히느니라. 그래서 가서 땅을 떠를 달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 배리면 배 속에 지금 중생들이 잔뜩 타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도 중생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잘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죠. 중생들이 이러 할 저러 할, 이것도 나서고 저것도 나서고, 팔족 술의 팔족 방울이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다!' 하고 말게 봐야 이게 잔잔하게 다스려지죠. 그래야 배는 돌아야 할 곳에 가서 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다지고 또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잘 다스려서 잘 지어 봐야 위층은 저절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은 생 각 마시고, 우선에 내 선장한테 모든 거를 일임하고 내가 체험하도록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진짜로 믿고 해 보세요. 그

렇게 하셔야 됩니다.

질문자(남): 예, 그리고 스님께서 소켓 애걸 하셨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님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스파크되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부 하면서 제 주인공과 스님이 틀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꾸 스님을 찾으려고 할 때 '주인공을 찾으면 되는데 왜 스님을 찾는다.' 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큰스님: 하허하... 그거요. 나무와 나무, 일체 만물만생이 다 때에 따라서 찾는 것이지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닙니다. 부부기간도 그렇고 자식기간도 그렇고, 가족이 때에 따라서 내가 꼭 만나야겠다 이래야 만나지고,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해야 하는 거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데 그냥 찾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옹도에 따라서 스님이 이거는 꼭 붙어야 되겠다 할 때에 자기 마음과... 이 마음은 제가 없으니까 영(0)에다 영을 넣으면 영 하나로 돼 버리고, 그것도 영이죠. 그러니 이 마음이 있는 사이 없이 있고, 하는 사이 없이 하고 진실로 현재에 나오는 사이 없이 나온다가죠.

그러니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하혈을 마하는데 급한가가 "스님, 스님 마음 좀 내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그때나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꼭 그거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에 해몽이 되죠.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 부족한 듯한 생각이 있으면, 무거운 것은 한 손으로 드는 거보다 두 손으로 틀어야면이 거뜨히 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도 다 같이, 상황에 따라서 한 환난에 일체제불이 들고 나신다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응신(應身)이 돼서 나무가 주시는 겁니다. 그 나뭇다는 것이 같이 응해서 하나가 돼 준다 이 소리거든요.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4년 8월 7일 법흥재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